

#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오복숙\*, 원유순\*\*, 함승례\*\*\*

남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과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Bok-Suk Oh(welcome2351@hanmail.net)\*, You-Soon Won(wonyousoon@hanmail.net)\*\*,  
Seung-Rye Ham(gka41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긍정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격성요인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넷째, 공격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는 및 대인관계 간에 있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중심어 : |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 대인관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negatively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positively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co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aggressions, but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positively them. Third, while adolescents' aggression factors influenced negatively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urth, adolescents' aggression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y also analyzed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 keyword : | Parenting Attitude | Aggress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1. 서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 대인관계의 질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형의 자산이며 유형의 자산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간다. 또한 물질문명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메말라가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의식이나 인간관계의 회복이 보다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대인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 이해 및 배려를 하는 기술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학교생활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경쟁적인 입시제도와 학과에 편중된 학교운영이라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시기에 타인을 배려하고 동료와 협동하여 일을 함께 도모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개인의 덕목으로서도 아름답지만 성인기의 성숙한 대인관계에 밑바탕이 된다.

대인관계는 타인들과의 다양한 관계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일반성인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주로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관계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터득해 가는 것은 인격형성과 정서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시기에 또래관계나 교사관계를 통해 형성된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기술은 후일 취업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보다 확대된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매우중요하다. 청소년시기의 잘못된 또래관계의 형성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상당히 큰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는 매우중요하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갖는 교사와의 관계는 효율적인 학습성취나 공동생활의 규칙준수를 통한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적으로 학교에만 위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간의 불분명한 역할관계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여 올바른 교사관계가 더욱 요청 된다.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아직 부모의 지원과 보호 하에 있는 그들의 환경적 이유 때문에 부모의 다양한 양육방식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양육 방식을 자녀의 성격이나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를 애정이나 합리적 설명은 긍정적 양육 방식으로, 방임이나 학대를 부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보다 친화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녀가 지적으로 개방성을 띄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및 애착을 느끼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과 갖는 인간관계도 긍정적으로 갖는 성향이 강하다[1][2]. 또한 만족도가 높은 대인관계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3][4].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피학대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또래관계로부터 집단 소외될 가능성이 비경험의 청소년보다 더 높다[6]. 이러한 방임 학대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우울과 공격성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7].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비행문제에는 공격성이 중요한 예측변인 중의 하나이다[1]. 공격성은 타인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는 성질로 규정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이나 불안증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비행 역시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적인 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8].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생활이 점차 학교생활로 옮겨지면서 주로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정은 여전히 사회의 기본 생활공동체로서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임과 동시에 진인교육의 또 다른 장이다. 애정이나 합리적 설명 등을 통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들의 자아탄력성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이와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학대나 방임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공격성에도 정(+)의 관계를 지닌다[5].

상반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공격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지니는 경로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형성과 학업성취는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변수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의 증진문제를 모색해보는 것은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의 외적변인과 청소년의 내적변인이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의 차이점을 밝힌 연구가 있다[5][9]. 또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상반된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사이에서 개인 내적변수인 공격성의 경로역할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비교하여 대인관계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초4 패널데이터 6차년도(2015년도)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 불가능한 응답자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2,378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가설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주요변수

#### 1.1 대인관계 적응

대인관계 적응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6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한 교우관계 5문항과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교우관계에 대한 문항은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관계에 대한 문항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 적응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사용된 문항은 역 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인관계 적응에 해당하는 10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842이었다.

### 1.2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6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애정이나 합리적 설명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해 주신다',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서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 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사용된 문항은 역 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해당하는 7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873이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해당하는 8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78이었다.

### 1.3 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6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공격성에 관련된 설문 문항으로는 6개 문항으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 할 때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공격성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부정문으로 사용된 문항은 역 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공격성에 해당하는 6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810이었다.

일반적 요인은 성별,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 주관적 경제적 수준, 주관적 성적만족도 등으로 6개 문항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별과 부 직업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 1.4 자료분석방법

자료처리는 SPSS Ver. 2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긍정적,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대인관계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공격성, 대인관계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과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5.8%, 여자가 40.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부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이 42.9%, '고등학교졸업 이하'로 응답한 집단이 32.9%의 순이었다. 모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이 40.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8.6%의 순이었다. 부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성적만족도는 '잘한 편이다'가 40.8%, '보통이다'로 응답한 집단 31.6% 순으로 조사되었다.

##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최종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주요 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을 [표 1]에서 확인한 결과, 각 변인에서 왜도가 절대 값 3 미만, 첨도의 절대 값이 10 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요인)의 기술통계치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긍정적 양육태도	1.00	4.00	3.01	.527	-.255	.524
부정적 양육태도	1.00	3.63	1.72	.447	.358	-.348
공격성	1.00	4.00	1.93	.542	.158	-.089
대인관계 적응	1.30	4.00	3.09	.436	.235	-.161

## 3. 상관분석결과

관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 적응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없었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variable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공격성	대인관계 적응
긍정적 양육태도	1			
부정적 양육태도	-.568***	1		
공격성	-.256**	.333**	1	
대인관계 적응	.483***	-.414**	-.313**	1

주) \* p<.05, \*\* p<.01, \*\*\* p<.001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 적응과 긍정적 양육태도( $r=.483$ )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 $r=-.414$ )와 공격성( $r=-.313$ )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응답자들의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인다는 것이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정(+)의 상관성( $r=.333$ )을,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의 상관성( $r=-.256$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격성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부(-)의 상관성( $r=-.313$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대인관계 적응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p<.001$ ).

## 4.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 구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공격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표 3]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 $\beta=.150, t=5.811, p<.001$ )과 성적만족도( $\beta=.192, t=7.595, p<.001$ )는 대인관계 적응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나 주관적 성적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나 주관적 성적만족도는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력을 7.3% 정도 설명하고 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 발생여부를 확인결과 분산팽창지수인 VIF 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349, t=12.740, p<.001$ )요인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168, t=-6.130, p<.001$ )는 대인관계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1단계에서 투입된 주관적 경제수준 변수( $\beta=.059, t=2.511, p<.05$ )와 주관적 성적만족도 변수( $\beta=.131, t=5.795, p<.001$ )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표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성별	-.009	-.010	.011	.013	.004	.004
부학력	-.027	-.036	-.047	-.063*	-.048	-.063*
모학력	.028	.036	.034	.043	.033	.042
직업1	-.051	-.049	-.045	-.043	-.047	-.045
직업2	-.038	-.039	-.040	-.041	-.036	-.036
직업3	-.014	-.009	.000	.000	-.008	-.005
경제적수준	.111	.150***	.043	.059*	.039	.053*
성적만족도	.114	.192***	.077	.131***	.071	.120***
긍정적양육태도			.289	.349***	.279	.336***
부정적양육태도			-.166	-.168***	-.127	-.129***
공격성					-.115	-.141***
R <sup>2</sup>	.073		.274		.291	
R <sup>2</sup> change	.073		.202		.017	
Adj R <sup>2</sup>	.068		.269		.286	
F change	14.570**		206.661**		35.910**	
Durbin Watson	1.990					

주) \*p<.05, \*\*p<.01, \*\*\*p<.001, 성별(남자=1, 여자=0), 직업1(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1, 농업·숙련직, 기능원, 기계장치조립종사자=0,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0), 직업2(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0, 농업·숙련직, 기능원, 기계장치조립종사자=1,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0), 직업3(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0, 농업·숙련직, 기능원, 기계장치조립종사자=0,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1)

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력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변화된 설명력은 20.2%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요인이 대인관계 적응과의 영향력을 27.4%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공격성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공격성( $\beta = -.141, t = -5.993, p < .001$ )은 대인관계 적응에 부(-)의 영향을, 1단계, 2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인 주관적 경제적 수준( $\beta = .053, t = 2.304, p < .05$ ), 주관적 성적만족도( $\beta = .120, t = 5.345, p < .001$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beta = .336, t = 12.393, p < .001$ )는 대인관계 적응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양육태도( $\beta = -.129, t = -4.616, p < .001$ )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 발생여부를 확인결과 분산팽창지수인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는 변화된 설명력은 1.7%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공격성이 대인관계 적응과의 영향력을 29.1% 정도 설명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 $\beta$ 값)를 보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 $\beta = .336$ )가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력이 높았으며,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높이고 대인관계 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 발생여부를 확인 결과 분산팽창지수인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

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본 연구모델의 Durbin-Watson값은 1.990으로 나타나 오차 간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공격성의 매개효과검증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 변수를 매개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 구축을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과정을 활용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10].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공격성 → 대인관계 적응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하여 공격성 변수를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와 매개변수인 공격성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을 검증하였다.

[표 4]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먼저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하여 공격성 변수를 검증한 결과, 공격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 $\beta = -.098, t = -3.896, p < .001$ )을 주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에 정(+ )의 영향( $\beta = .277, t = 11.028, p < .001$ )을 주었다. 즉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은 낮아지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아졌다. 공격성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1.7%였다.

2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하여 대인관계 적응 수준을 검증한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유의한 정(+ )의 영향( $\beta = .366, t = 15.898, p < .001$ )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부(-)의 영향( $\beta = -.206, t = -8.961, p < .001$ )을 보여 주었다. 즉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적응력이 높았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적응 수준이 낮았다. 대인관계 적응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6.2%였다.

3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와 매개변수인 공격성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대인관계 적응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변수는 대인관계 적응에 유의한 정(+ )의 영향( $\beta = .349, t = 15.383, p < .001$ )을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적응에 부(-)의 영향( $\beta = -.159, t = -6.817, p < .001$ )을, 매개변수인 공격성 요인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 $\beta = -.172, t = -8.658, p < .001$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공격성 요인은 독립변수인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대인관계 적응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요인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요인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대인관계 적응에는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격성 요인은 대인관계 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요인은 공격성 요인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8.8%였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공격성 요인을 매개로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16이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47로 나타났다.

표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공격성		대인관계적응		대인관계적응	
	B	$\beta$	B	$\beta$	B	$\beta$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101	-.098***	.303	.366***	.289	.349***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336	.277***	-.201	-.206***	-.155	-.159***
공격성					-.138	-.172***
R <sup>2</sup>	.117		.262		.288	
Adj R <sup>2</sup>	.117		.261		.287	
F	136.954***		364.774***		276.925***	

주) \* p<.05, \*\* p<.01, \*\*\* p<.001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대인관계 적응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회귀계수 값이 2단계의  $\beta = .366$ 에서 3단계에서는,  $\beta = .349$ 로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회귀계수 값이 2단계의  $\beta = -.206$ 에서 3단계에서는,  $\beta = -.172$ 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매개로 대인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6. 효과분해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본 연구모형의 효과분해는 [표 5]와 같다. 효과분해 분석은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직접효과( $\beta = .366, t = 15.898, p < .001$ )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에 직접효과( $\beta = .277, t = 11.028, p < .001$ )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격성은 대인관계 적응에 직접효과( $\beta = -.172, t = -8.658, p < .001$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매개로 한 대인관계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016,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매개로 한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047,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로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부분 매개하여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낮고 대인관계 적응력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나, 공격성 변수는 대인관계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변수임이 규명되었으며,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부분 매개하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 < .001$ ). 따라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2>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5. 연구모형 변인 간 효과 분해

경로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Sobel test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공격성	-.098	-.098***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공격성	.277	.277***		
공격성	→ 대인관계적응	-.172	-.17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공격성 → 대인관계적응	.333	.349***	-.016***	3.54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공격성 → 대인관계적응	-.206	-.159***	-.047	-6.834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III. 결론

### 1. 연구결과 및 함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초4 패널데이터 6차년도(2015년도)데이터를 활용하여 응답자 고등학생 2,37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및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적응도가 높았다. 학업을 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성적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학업성취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11]. 이러한 현상은 높은 학업성취도는 주변으로부터 쉽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서열식 평가 또는 비교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재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개별적으로 성적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격성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애정이나 합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향상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격성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사이에서 경로역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대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임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2]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공격적인 청소년, 또래관계의 문제로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경우, 또는 교사와의 관계문제로 학교생활이나 학습에 장애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다. 원만한 대인관계 및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아울러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상담. 교육이 병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이 될 것이다.

넷째, 공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적응은 낮았다. 후기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도 높았다[13].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대인관계는 상호영향을 교환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공격성을 낮추거나 대인관계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격성을 낮추는 프로그램과 대인관계의 적응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면 보다 더 효율

적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개입은 부모, 교사에 대한 개입과 또래에 대한 집단 상담 및 프로그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종운, 김지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1041-1054, 2014.
- [2] 이형진, 황동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3권, 제1호, pp.5-31, 2015.
- [3] 강희경,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326-335, 2015.
- [4] 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에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1호, pp.201-226, 2013.
- [5]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경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 pp.5-33, 2014.
- [6]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3권, 제2호, pp.119-134, 2015.
- [7] 김수정, 정익중,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효과와 최신효과에 대한 중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3권, pp.1-28, 2013.
- [8] 김혜영,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제10권, pp.9-31, 2000.
- [9] 전소영, 이정운, “보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제33권, 제1호, pp.185-200, 2011.

- [10] 이일현, *Easy Flow* 회귀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14.
- [11] 송영주, “학업성적 만족도와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비교,” 생애학회지, 제6권, 제3호, pp.1-15, 2016.
- [12]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1권, 제2호, pp.233-246, 2012.
- [13] 이정은, 배성만,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5 요인 성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pp.687-701, 2015.

함 승 례(Seung-Rye Ham)

정회원



- 2010년 2월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 청소년학과 졸업(사회복지학사)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치료상담학과(상담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년상담복지센터

<관심분야> : 청소년, 부부, 가족

### 저 자 소 개

오 복 숙(Bok-Suk Oh)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사)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상담학석사)졸업
- 2015년 3월 ~ 현재 :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가정법원

<관심분야> : 청소년, 부부, 가족

원 유 순(You-Soon Won)

정회원



- 2003년 2월 : 한국방송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사)
- 2006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아청소년학과(상담학석사)졸업

▪ 2015년 7월 ~ 현재 : 과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심분야> : 청소년, 부부, 가족